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박은우, 편집인 : 임정민

편집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김진모·배정환·서학수·양태진·이중용·

임상준·최진용·Hong Sok(Brian) Kim)

CALS VISION 2015

2009년 10월 농생대는 2015년까지 세계 1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는 'CALS VISION 2015'를 선포한 이후, 추진기획단을 조직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원 확보 등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CALS VISION 2015 추진기획단 보고서 발표 및 토의
(왼쪽부터 학사 개선팀 박영환 위원장, 교수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팀 한재용 위원장, 최양도 추진기획단장, 행정 시스템 개선팀 김경욱 위원장, 멀티 캠퍼스 기획팀 최윤재 위원장)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추진기획단은 최종적으로 '우수 인력양성', '연구 성과의 국제화', '교육 및 연구 지원 강화', '현장 실용화 연구 강화'를 핵심 과제로 하여 학사 개선, 교수 업적 향상 지원, 대학 행정 시스템 혁신, 멀티캠퍼스 활용 강화를 주요 세부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2010년 12월 13일 교수학사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으며, 2011년 1학기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추진기획단 조직, 실현 방안 마련

'CALS VISION 2015'의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최양도 교수(농생명공학부)를 단장으로 24명의 교수진이 참여한 CALS VISION 2015 추진기획단이 조직되었다. '학사 개선팀', '교수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팀', '행정 시스템 개선팀', '멀티 캠퍼스 기획팀'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은 2010년 8월 1차 전체 회의 이후 5차례의 전체회의 및 각 분과별 토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농생대의 현황과

계속되는 후원과 정성, 변화하는 농생대

농생대의 발전을 염원하는 관심과 후원이 2010년에도 계속됐다. 2010년 한 해 동안 서울대발전기금에 농생대로 지정된 기금과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에 모금된 기금은 199건에 11억 98백여 만 원이다. 'CALS VISION 2015 선포식 및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를 치르며 2009년 모금된 368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8년 174건의 모금



㈜경우시스템즈 장세권 대표(농공 70, 사진 왼쪽)가 2010년 12월 농생대 발전기금 1억 원을 출연했다.



정윤환 동창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기부한 농생대 셔틀버스가 2월 7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과 비교하면 착실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업이나 특정 거액기부자에 의한 일회성 후원이 주류를 이루던 것에서 탈피하여 동문, 학부모, 교직원, 일반 후원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정기 후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학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후원에 동참하는 기부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내용〉

2면 _ 이돈구 교수, 산림청장 임명
2면 _ CALS Global Challenger

3면 _ 그린칼리지 2기 대상 수상
3면 _ 생명·환경과학 체험학습

4~5면 _ 신입 교수 소개
6면 _ 동문탐방(권진봉/최병원 동문)

이돈구 교수, 산림청장 선임



■ 이돈구 교수(산림과학부)가 산림청장에 선임되어, 2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29대 산림청장에 취임했다.

이돈구 교수는 1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회장을 지내며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주도했으며 스웨덴 왕립 한림원 등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활발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생명의숲 국민운동'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국내 환경운동에도 큰 힘을 보탰고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에서 사라져가는 세계의 산림을 지켜내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본교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임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돈구 교수는 1981년부터 산림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년 간 제16대 학장으로 재임했다.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



■ 19회를 맞은 특강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를 통해 김진수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가 농생대를 찾았다.

현재는 CJ 상담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수 전 대표는 2010년 11월 25일 201동 대강당에서 'Immortality & Transformation - 이순신의 리더십과 산업의 갈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농생대 동문(농경제 70)이기도 한 김진수 전 대표는 'Globalization'의 의미를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이순신의 리더십에서 'Immortality'와 'Transformation'을 배울 것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갈 길은 'Essence'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How 보다는 What을 우선으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옳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화가 자유로운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농업 역시 인류의 미래가치 트렌드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강조했다.

고희종 교수, 차세대 바이오그린21 사업단장 선정



■ 고희종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농촌진흥청이 지원하는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의 '식물분자육종사업단' 사업단장으로 선정되었다. 고희종 교수는 앞으로 사업단내 모든 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사업단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은 2011년부터 10년 간(2011~2020) 매년 사업비 650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국책 연구프로그램으로,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제1세대 바이오그린사업에서 도출된 우수성과의 조기 실용화와 국가 원천기술 및 미래 선도 분야 지원의 확대·강화를 통한 세계적인 농생명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에서는 R&D추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운영 체제를 7개 사업단 중심으로 전환하여 각 사업단장을 공모하였고, 2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단장을 선정하였다. 고희종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은 '식물분자육종사업단'은 유용유전자 및 분자표지 활용 등의 분자육종 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을 목표로 연구하게 된다.

CALS Global Challenger



1월 7일 임명장 수여식
[박은우 학생(오른쪽 끝), 김정환 학생부학생(왼쪽 끝), 67 CALS Global Challenger 학생들]

■ 해외 선진 농산업시설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CALS Global Challenger. 이번 겨울방학에는 3개팀, 총 8명의 학생들이 세계 곳곳의 농산업 현장을 체험했다. '버섯스캔들'팀(농경제사회학부 김세일, 박종범)은 국내 버섯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과 미시적 접근을 통한 농업 발전 방안 탐구를 위해 중국을 찾아 버섯 생산지, 산파리 도매시장 5개 기관을 탐방했다. 'EWEA(Explorers of Eco-friendly Wooden Architecture)'팀(산림과학부 맹은규, 오신영, 차혜란)은 캐나다의 폴리곤 목조타운하우스 등 6개 기관을 탐방하며 캐나다의 친환경 목조 건축물의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도입 가능성 및 방법을 모색했다. 또한 '농대 새내기'팀(농경제사회학부 최유진, 조지윤, 임은영)은 독일과 프랑스를 찾아 Ecovin, 베를린 공대 등 6개 기관 탐방을 통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알파그린적 트렌드에 맞춘 우리술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여름방학 5기 CALS Global Challenger로 국제 농업기구를 탐방했던 농경제사회학부 유종현 학생은 이번 겨울방학에는 CALS Internship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에서 8주간 일하며 현장 실무 경험을 쌓았다.

‘노키안’ 팀, 그린칼리지 2기 대상 수상

■ 농생대 학생 4명으로 구성된 ‘노키안(Nokian)’ 팀(환경재료과학전공 한미소, 원예과 학전공 류수현, 산업인력개발학전공 최은정, 농생명공학계열 황승호)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최한 ‘그린 칼리지(Green College) 2기’ 대상을 수상했다. 그린 칼리지는 대학생들이 현장 탐방을 통해 ‘녹색 일자리’ 비전을 설계하는 대학생 캠프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은 2010년 10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 간 녹색성장 활동단으로서 블로그 운영, 캠페인 및 녹색 일자리 비전계획서 수립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활동단으로 참가한 20개 팀 중 가장 우수한 활동을 펼쳐 대상을 수상한 노키안 팀은 팀원들의 전공을 살려 ‘목조건축설계사’, ‘생태건물조경사’, ‘미생물자원응용 녹색공정 고안가’, ‘환경건설턴트’ 등 진로를 설정하고 생태조경-목조건축 분야의 창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1천만 원 상당의 해외 탐방 지원비와 후원기관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왼쪽부터 김상협(청와대 녹색성장정책비서관), 이다해(녹색성장위원회 홍보대사), 최은정, 류수현, 양수길(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한미소, 우기중(녹색성장추진 기획단장)

김민균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



■ 김민균 교수(농생명공학부)가 2010년 12월 1일 개최된 ‘2010 프론티어 연구성과 대전’에서 국내외 유전체기능연구 및 생물정보학의 발전과 연구 결과의 실용화 추진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임정빈 교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



■ 임정빈 교수(농경제사회학부, 기획부학장)가 2010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임 부학장은 국제농업통상협력 분야의 탁월한 연구 성과와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여받았다.

NICEM, 청소년을 위한 생명·환경과학 체험학습



■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생명·환경과학 교육센터에서 개최하는 ‘생명공학·환경과학 체험학습’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2월 26일까지 개최되었다. ‘동·식물 DNA 추출 및 전기영동’, ‘세포와 세포분열의 관찰’, ‘발효와 효소’, ‘미생물 배양 및 관찰, 동정’ 등 다양한 주제의 8개 프로그램이 각 2일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이론 교육과 함께 NICEM의 첨단기기를 이용한 실험, 실습을 통해 생명·환경과학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에는 모집 정원의 두 배가 넘는 학생들이 신청하여 컴퓨터 추첨을 통해 교육 대상자가 결정되었다.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생명공학과 환경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수준 높은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0 조경전



CALSP 송년의 밤



김상진기념사업회, 농업·농촌 탐방



교육연수원, 중등교원 연수

작물유전체연구실,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작물유전체연구실(지도교수 이석하)이 2010년 11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로부터 두류분야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았다. 이 연구실은 미국 농업부(USDA)로부터 국내에 없는 상당수의 유전자원을 분양 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남아메리카의 내충성 유전자원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어 기존의 두류 유전자원관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전자원과 중복 되지 않는다.

2010 SNU LANDSCAPE EXHIBITION

조경학전공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 5일 간 200동 2층 로비에서 졸업전시회를 개최했다. 11월 29일에 열린 오픈식에는 박은우 학장과 전공 교수진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전시된 졸업 작품과 기말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브리핑을 들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특강과 작품 리뷰, 평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CALSP 송년의 밤

2009, 2010학번 학부모로 구성된 2010 서울대 CALSP 송년의 밤 행사가 2010년 12월 17일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CALSP 모임 회원 40명을 비롯하여 집행부와 학부장, 전공주임교수 10명 등 총 50명이 참석하여 2010 CALSP 회장과 감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학소개 동영상,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영상편지 상영과 농생명공학부 최양도 교수의 특강 시간도 마련되었다.

제7회 농업·농촌 탐방

농생대는 (사)김상진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한식세계화'를 주제로 제7회 대학생 농업·농촌 탐방을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후원으로 2010년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3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국순당, 종가집 등 전통 식품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업체를 견학하고 슬로푸드문화원, 선제사찰음식연구소 등 건강한 먹을거리를 연구하는 다양한 시설을 체험했다.

교육연수원, 겨울방학 중등교원 연수

교육연수원(원장 농산업교육과 김진모 교수)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원 연수 수요에 따라 겨울방학 중에도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취득을 위한 동계특별 연수', 특성화고 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연구학교 교원연수',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교원 연수', 마이스터고 교사를 대상으로 '마이스터고 프로젝트식 수업 기초과정', '마이스터고 프로젝트식 수업 향상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전국의 특성화고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제 19~20기 고교직업 교육 담당 창의적 혁신리더과정'을 운영하였다.

신임 교수 소개



농생명공학부
강동현

강동현 교수(부교수)가 외국인 교수 특별채용을 통해 2011년 2월 1일자로 농생명공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에 부임했다. 강동현 교수는 미국 Kansas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Washington State University 교수로 재직했다. 연구 분야는 식품위생학이다.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준

김준 교수(교수)가 저명학자 특별채용을 통해 2011년 3월 1일자로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지역시스템공학전공)에 부임했다. 김준 교수는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연구 분야는 기후변화, 농림 및 생물기상학이다.

NICEM 교육프로그램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은 기기 사용자와 관련 분야 연구원,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다. 1월 중에는 18일에 투과전자현미경 워크숍, 21일에 크로마토그래피 세미나, 25일에 단백질 정제(FPLC) 워크숍을 개최했다. 2월에는 15일에 주사전자현미경 워크숍, 22일에 Rheology 기초 이론 및 응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홈페이지(<http://nicem.snu.ac.kr>)를 통하여 교육 및 워크숍 일정을 확인하고 참가신청 할 수 있다.



조경수 관리교육

식물병원, 제21회 조경수 관리교육

식물병원(원장 농생명공학부 제연호 교수)은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간 제21회 조경수 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최신이론과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조경수 관리 전문 교육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참가한 107명의 교육생들은 조경수의 생리, 주요 병해충관리,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 이식기술, 토양 관리, 농약 안전관리 등을 교육받았다.



지역정보전공 워크숍

지역정보전공 워크숍

농경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은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부생 19명, 대학원생 2명과 함께 전공주임 최영찬 교수를 비롯한 4명의 전공교수와 김성수 명예교수가 참석하였다. 서귀포감귤APC 등 산업체를 견학하고 현장강의를 펼쳤으며 전공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 학생들의 진로 상담 등의 시간을 가지며 교수진과 학생들 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 연구개발 사업단, 인도네시아 현장 실습 및 심포지엄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 연구개발 사업단, 인도네시아 현장 실습 및 심포지엄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 연구개발 사업단(단장 산림과학부 윤여창 교수)은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인도네시아 현장실습을 개최했다. 산림탄소배출권 전문가 양성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현장실습은 열대림의 생태계에 대한 이론 강의와 열대림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에 관한 현장체험활동, 관련 국립공원, 국제기관, 연구소의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2월 18일 고려대학교에서 '기후변화와 산림 탄소 연구 및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EBI 워크숍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EBI Workshop Advanced Course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소장 식물생산과학부 최도일 교수)는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한국유전체학회와 공동으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Advanced Course for NGS Data Analysis'를 주제로 생물정보교육을 개최했다. 농생대 전산강의실에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40명의 교육생이 직접 데이터를 다루어 보는 hands-on workshop으로 진행되었다.



산림과학부
김현석

김현석 교수(조교수)가 신입교수 공개채용을 통해 2011년 3월 1일자로 산림과학부(산림환경 학전공)에 부임했다.

신임 김현석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 및 석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미국 Duk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연구 분야는 생리생태학이다.



농생명공학부
이기원

이기원 교수(조교수)가 유망신진학자 특별채용을 통해 2011년 3월 1일자로 농생명공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에 부임했다.

신임 이기원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건국대 특성화학부 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연구 분야는 천연물 기능 유전체학이다.

신임 교수 소개

아름다운 연습립과 교정이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농공 71)



“5월에 열리는 딸기축제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크게 설레게 했습니다. 우리 학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행사로 타 대학의 친구들을 많이 초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한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저에게 아름다운 연습립과 교정은 열심히 공부하기에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어 지금도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월 제13대 한국감정원 원장에 취임한 권진봉 동문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바다를 매워 육지로 만드는 간척사업에 매력을 갖고, 국토건설의 꿈을 키우면서 농공학(토목전공)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졸업 후, 1977년 제13회 기술고시에 합격, 이듬해 구 건설부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32년간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하면서 국토 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기획, 제도 업무를 추진했다는 권 동문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인 아라뱃길 사업 등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큰 보

람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권진봉 동문은 현재 공직기능 중심에서의 역할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서 공직업무 강화를 통해 감정평가시장의 질서유지는 물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직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인화단결은 물론, 공정하고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생동감 넘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병대 사병으로 군 생활을 한 권진봉 동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해병정신이 사회생활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매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처리한다면, 건강의 최대 적인 스트레스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고, 자기가 희망하고 목표로 했던 일들이 무리 없이 해결되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후회 없는 학창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과 숨은 저력을 믿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하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리라 믿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능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농대 동문들과 선배들은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도울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세계적인 농업기업을 육성하는 주춧돌이 되어주길

최병원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잠사 77)



국내최대 벤처캐피탈회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병원 동문은 대학 신입생 시절 지금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인 류문일 동문(농생물 66)이 농업의 발전과 농민을 위해서는 농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행정고시를 통한 농림부 공무원과 금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영향을 받아 금융계로 진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 농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투자전문펀드를 정부주도로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이 큰 꿈을 가지고 세계적인 농업기업을 육성하는 주춧돌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이제부터 농업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Private Equity를 지향하는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999년 창립 이래 누적AUM(관리자산) 2조 원을 돌파하여 350개사에 투자하였으

며, 2010년에는 국민연금 대체투자부분 최우수 운용사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주로 첨단성장기업에 투자하여 기업성장과 함께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골프존, 슈퍼리마, 사파이어테크, 전선앤파이버 등 IT 관련기업과 함께 금화종묘, 씨에버(개체굴), 셰이프푸드(계란저온살균) 등 농수산관련기업에도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최병원 동문은 설명한다.

최병원 동문은 앞으로 시대흐름에 맞추어 농업과 바이오산업 관련기업에 최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대부분 사업성공의 key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이라고 그동안의 투자경험을 통해 체득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농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가 부족하면 투자는 줄어든 것이고 그만큼 농업의 경쟁력확보는 늦어질 것입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지역농사에서 Global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모험심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정신과 Global경영마인드를 가진 후배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日日新又日新’ 이것이 최병원 동문의 생활신조다. “산다는 것은 매일 매일 새로워(fresh)져야 한다는 것을 생활신조로 하루하루 새로움을 찾고자 공상도 하고 노력을 경주하는 편입니다.”

(중앙일보 2011년 2월 10일)

“구제역 바이러스, 공기 중 먼지 타고 이동”

- 국내 처음 공기 중 포집 성공한 이인복 서울대 교수



서울대 지역시스템공학과 이인복 교수는 농축산 시설 내 대기 환경 전문가다. 최근 국내 최초로 경기 이천시 축사에서 공기 중 구제역 바이러스를 잡아낸 것이 바로 이 교수팀이다.

공기를 통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은 해외에서 제기됐지만 바이러스를 실제로 포집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잡혔다고 해서 그 전에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팀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포

집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선 바이러스가 전혀 안 나왔다. 바이러스는 분진에 붙어서 공기에 떠다니는 건데 그 날은 눈이 온 직후라 분진이 적었다.”

겨울철 습도도 낮고 바람도 센 우리 기후에선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연구팀은 과거 3년 간 돼지 인플루엔자나 돼지생식기호흡

기증후군 같은 호흡기성 질병 바이러스를 축사 근처에서 포집해 왔다. 농장 건물 안은 물론 건물과 건물 사이, 경계 부지 등에서 자주 바이러스가 잡혔다. 공기 중 전파가 잡힌다는 증거다. 그런데 수의학자들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두 질병보다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국내 축산 시설 환경은 공기 간 전파가 용이한 편이다. “축산 시설 안엔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분진이 많다. 가기에 병 걸린 동물의 침이나 분변이 묻으면 바이러스가 묻은 분진이 공기 중으로 퍼져가는 거다. 특히 기온이 낮거나 병 걸린 가축이 밀집해 있다면 바이러스 농도도 짙어지고 생존 기간도 길어진다. 위험할 수밖에 없다.”

축산인들 중에 공기 전파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나름대로 방역을 했는데도 구제역에 걸리니 답답한 마음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과학적 실험 결과를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이용해서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방역이다.”

(매일경제 2010년 12월 16일)

[기고] 농협법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 박은우 학장



얼마 전 치솟은 배추 가격 때문에 온 사회가 흥역을 치렀다. 배추 가격 폭등은 무엇보다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주요인이다. 하지만 생산 감소로 예상된 가격 증가폭 이상으로 예상보다 더 크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한 것은 산지 수집상의 매점매석, 높은 유통비용 등 농산물 유통·판매 체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아마도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등 농업 협동조합이 발전한 선진국과 같이 농협이 개별 농민 조합원을 대신해 체계적인 출하 조절과 유통망 구축, 판매 방식 다양화, 가격위협 관리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면 훨씬 낮은 수준의 사회적 충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해 배추 가격 폭등 사태에서 농협이 한 역할과 기능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협은 지금까지 안전하게 돈을 버는 신용 사업에만 초점을 두고 농민의 이익 증대를 위한 경제 사업을 등한시해왔다. 물론 농협도 만연한 신용 사업만 추구하지 말고, 조합의 주인인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없이 제값에 팔아주는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부, 농협, 농민단체들의 농업 개혁 방안에 대한 참여의 의결 대립으로 그동안 합의의 도출에 실패해 농업 개혁 움직임이 지지부진해왔다. 농협을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농협으로 만들기 위해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다행히 MB 정부 들어 핵심 국정 개혁 과제의 하나로 농협 개혁을 선정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이해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마침내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농협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한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돈 장사를 잘하는 농협에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이 종속관계로 얹혀 있는 농협의 사업 구조를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농민의 권익 증대를 위한 판매·유통 사업 등 경제 사업 부문을 강화하는 독립 사업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회 처리 지연이 농협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백대 속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이달 초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여당이 단독으로 내건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정국이 경제쇄도 해안 안에 개정안이 처리될지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만일 연내에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된다면 모처럼 공감대가 형성됐던 농협 개혁도 동시에 미뤄지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농협법 제도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농협의 존재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농협법 개정을 통해 진정으로 농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농협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것이 바로 농협의 존재 이유다.

(파이낸셜뉴스 2011년 1월 5일)

[fn논단] 신묘년을 長袖善舞의 기회로

- 농경제사회학부 이성우 교수



신묘년 첫날 청와대가 내놓은 “일기가성(一氣呵成)”이란 화두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진단과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일기가성은 “일을 한 번에 매끄럽게 처리한다”는 의미다. 사회적 해석은 화두가 원래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서는 다소 진전돼 우리나라가 한 번에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한가 여부에 모아진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선진국의 지위는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등치될 때 인정된다.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현 위상은 어디쯤일까. 2010년 새로이 책정된 기준에 따라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지표지수 0.877로 일본의 0.884에 뒤이는 세계 12위 수준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 기구에서 결정한 33개의 선진경제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재 33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앞서 분류한 2개의 선진국가군에 중첩돼 있다. 이보다 더 엄격하게 선진국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인가 여부이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기구에 가입한 마지막 회원국이다.

대다수 객관적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위치시킴에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일반 국민의 비율은 낮은 편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은데 기인한다.

논란은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진입 여부를 확인하는 관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의 분석으로 현 정부의 예상대로 2011년 5% 성장을 달성할 경우 이후 4% 중반의 성장으로도 약 5년 후인 2016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밋빛 예측으로 보이지만 약 1년 전 우리나라가 2010년 6%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리라고 예측한 국내외 기관은 단 하나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대외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기회는 너무도 많다.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의 실행은 세계 최대 규모의 2개 경제권과의 무역 경쟁력에 대한 시장 선점 효과 및 교역환경 개선을 통해 예측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국내 상황도 좋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과 민간소비는 수출 및 투자호조 등에 기초한 자생적 복원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정부의 민간소비자 정책의 종료에도 수출 및 투자 호조가 고용 및 가계소득을 개선시켜 소비 확대에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됐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불안전고용 상태인 취업자도 감소하는 등 질적인 고용상황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의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를 추진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력 구축을 통해 장수선무(長袖善舞)의 전기를 체감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MB)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동문동정]

▶**김병섭** 동문(농경제 72)이 2010년 12월 6일 서울대학교 행정대 학원장에 취임했다.

▶**한준호** 동문(임학 64)이 2010년 12월 14일 도시가스업체 삼천리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되었다.

▶**김성배** 동문(조경 75,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장)이 2010년 12월 23일 한국지역학회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권진봉** 동문(농공 71)이 1월 5일 한국감정원 선임 원장에 취임했다.

▶**박석희** 동문(농경제 72)이 2월 13일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김병철** 동문(축산 70)이 고려대학교 제18대 총장에 선임되어 2월 28일 취임식을 갖고 3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교수동정]

▶**서진호** 교수(농생명공학부)는 2010년 10월 23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전주 발효국제컨퍼런스에서 '미생물공정기술을 이용한 식품소재생산'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현중** 교수(산림과학부)는 2010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9회 Asian Workshop on Polymer Processing에서 '선진 집착 기술과 친환경 바이오합재료의 연구 분야 및 동향'을 주제로 초청강연했다.



▶**이전제** 교수(산림과학부)는 한국목재공학회 회장으로서 2010년 12월 14일 충남 공주 한옥마을에서 '국산목재 이용 한옥 심포지엄'을 주관해 개최하고, 한옥표준 모델에 대한 건축 방법을 제시하고 현대인의 생활패턴에 맞는 공간 구성 등 신 한옥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다.



▶**김성일** 교수(산림과학부)는 세계자연보호연맹 이사로 2010년 12월 23일 환경단체 대자연과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영국문화원의 개최로 경원대에서 열린 '글로벌 대학생 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2010 그린캠퍼스 환경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했다.



▶**박은우** 학장은 AAACU(Asi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Colleges and Universities) 회장으로서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CHERA(Global Consortium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Agriculture)의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손정익** 교수(식물생산과학부)는 1월 25일 전남대에서 열린 한국-네덜란드 LED 응용 산업 공동세미나에서 '국내 식물공장과 LED 응용에 관한 연구개발 동향'에 관해 주제발표했다.



▶**나승일** 교수(농산업교육과)는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운영하는 '국제개발협력과 농업 교과목 개설 사업'의 지원을 받아 '국제개발협력과 농업' 교과목 수강생들을 인솔하여 필리핀 KOICA 사무소 및 국제개발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찬** 교수(농산업교육과)는 2월 26일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주관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11 A-HRD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전통적 소살링에서 사회적 미디어를 활용한 신개념 소셜러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7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F.873-2056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3-2056
- 원예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F.873-3560
- 산림환경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명과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3-2039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T.880-4901 F.873-2039

농정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팀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4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동기기술 T.880-4845 F.880-4847
국가농림기상센터 T.880-4966 F.871-1361
농업생물산소재연구소 T.880-4920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공익이농 원정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식품 안전성 및 독성 연구센터 T.880-4921 F.873-5260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 F.873-2039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T.880-4942 F.873-5426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0-4528
교육연구실 T.880-4844 F.872-8895

최고농업정책과 T.880-4998 F.886-48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4-0324 F.031)294-852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작실 T.880-4619
식품공장 T.880-4824

[동창회 소식]



▶농생대 동창회 신년교례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회장 정운환)는 1월 11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2011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57, 58학번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였으며 정운환 동창회장의 신년사, 상록문화재단 한인규 이사장의 인사말과 농생대 김기선 교무부학장의 모교 소식 소개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농생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재학생 12명이 참석하여 행사 진행을 돕고 선배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등 신년교례회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다.

▶농산업교육과 동창회 신년교례식

농산업교육과 동창회는 1월 8일에 신년교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규선 동창회장, 농촌지도·사회교육전공 조영철 동창회장, 고순철 원우회장, 김진모 학과장 등 동문 12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은사님의 새해 덕담을 들었다. 또한 후배들을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기 위해 학과발 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재학생 해외연수 선발팀에 대한 연수비 지원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동문들과 재학생이 하나 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 소식을 통해 알고 싶으신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대외협력·홍보팀]
(T. 880-4537, calsweb@snu.ac.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